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음 10월 26일) 제21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보훈회관 개관식 지난 30일 전주시 완산구 보훈회관 앞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 하점수 전주시 보훈단체협의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회관 개관식이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전북 농수산물식품 동남아 개척

베트남 호치민·싱가포르에 시장개척단 파견
총 89건 520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실적 올려
진안 홍삼제품, 베트남 바이어와 수출계약 성과

전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 본부(이하 무역협회)는 전북 농수산물식품의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5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싱가포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 총 89건 52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국가별 상담 결과로는 베트남은 61건 440만 달러, 싱가포르는 28건 8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특히, 진안군 소재 한국고려홍삼조합의 홍삼제품은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아 향후 3년간 18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도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하여 현지에서 경쟁력 있는 도내 업체는 물론 현지 유력 바이어를 선별하고 사전 상담 매장을 했던 현지 50여개 바이어와 1:1상담과 방문상담 등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무역협회의 현지 시장성 평가를 거쳐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엄선하였으며, 홍삼가공품(한국고려홍삼조합), 신선과일(무주조공, 장수신농), 초코파이(강동오케이), 장류(토당식품), 기능성식품(콩마을, 케비엔, 미네날바이오틱)를 생산하는 도내 8업체가 참가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전북도 농수산물식품 전체 수출액(10월말 기준, 2억 6,600만 달러)의 34%(9,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의 신규 거래선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동남아 시장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과 더불어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 베트남은 2018년 10월말 기준 약 2,7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북 농수산물 수출국 순위 5위이며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新)남방 핵심 국가이다.

개방 통상 국가인 싱가포르 농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8.1%가 증가한 약 200만 달러이다.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도내 업체는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지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현황과 현지 소비자들의 우리 상품에 대한 반응도 직접 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과 성과를 계기로 동남아 지역에 우리 농수산물의 본격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이후에도 참가 업체의 수출 거래 성사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엄단조치”

유은혜 부총리·교육부장관,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
사유재산 정부 몰수 등 가짜 정보 배포시 단호 조치
“대다수 사립유치원 스스로 처음학교로 가입” 등 언급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해 유아를 둔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며, 절대 묵과하지 않고 엄단조치하겠다고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들은 집단폐원이라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입장 발표 하룻판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3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협박

행위와 같다”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들이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다.

특히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학교로’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하며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공립 확충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교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도 신설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입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한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 뿐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다.

유 장관은 “아이들을 불모로 한(사립유치원들의) 주장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니 정부를 믿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10월 국내생산·소비·투자 ‘트리플 호조’

지난 10월 생산, 투자, 그리고 소비까지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일제히 ‘플러스(+)’를 기록했다. 3대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한 달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지난 7월(0.7%)과 8월(0.4%)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증가했다가 9월(-1.2%)에 감소로 돌아섰었다.

제조업과 광공업, 서비스업 생산도 각각 전월보다 1.0%, 0.8%, 0.3% 올랐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2% 올랐다. 지난 9월(-2.1%) 낙달 만에 하락했다가 한 달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1.9% 늘었다. 지난 9월(3.3%)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김영태 기자

본사 인사

▲김석진 임:부국장 명:부인주제

<12월 3일자>

| 메일 INDEX | |
|----------|----------------------|
| 3면 | - 남북 철도 공동조사 대장정 |
| 6면 | - 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상 |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